

# 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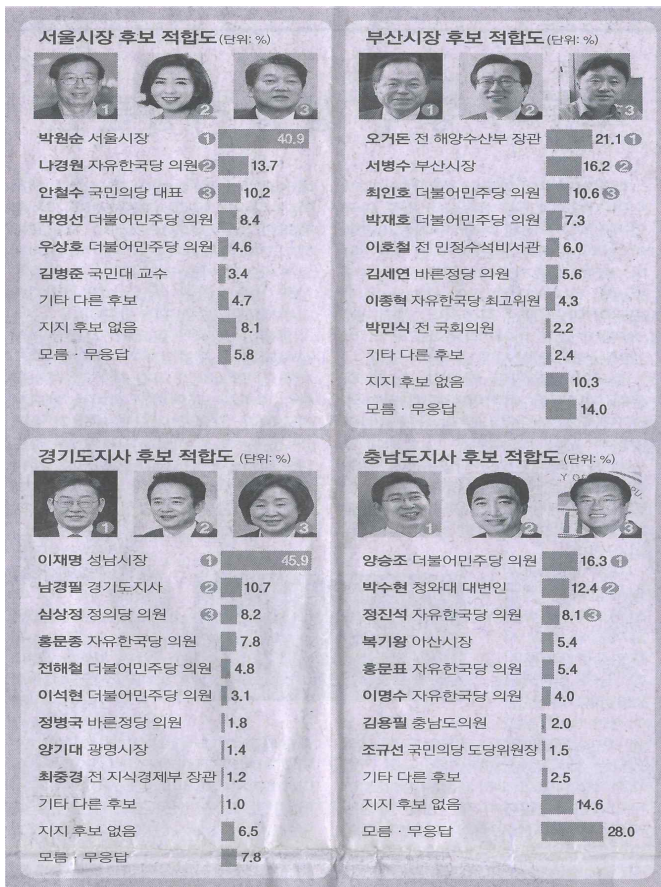
2018 - 1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 주 문

서울신문 2018년 1월 2일 12면 「박원순 독주, 나경원에 3배 앞서...오거돈 부  
 산서 ‘돌풍」 제목의 기사의 표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표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다. 위 기사는 그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는 박원순 40.9%, 나경원 13.7%, 안철수 10.2%, 박영선 8.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41\%$ 다. 따라서 나경원, 안철수, 박영선의 적합도는 오차범위내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표는 2위 나경원, 3위 안철수로 순위가 가려진 것으로 표기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는 오거돈 21.1%, 서병수 16.2%, 최인호 10.6% 등으로 조사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44\%$ 다. 따라서 오거돈과 서병수, 그리고 서병수와 최인호의 적합도는 각각 오차범위내에 있다. 그럼에도 관련 표는 1위 오거돈, 2위 서병수, 3위 최인호로 표기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45.9%, 남경필 10.7%, 심상정 8.2%, 홍문종 7.8% 등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40\%$ 다. 따라서 남경필, 심상정, 홍문종은 오차범위내에 있다. 그럼에도 관련 표는 2위 남경필, 3위 심상정으로 순위를 매겼다.

충남도지사 후보 적합도는 양승조 16.3%, 박수현 12.4%, 정진석 8.1% 등으로 조사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46\%$ 다. 양승조와 박수현, 그리고 박수현과 정진석의 적합도는 각각 오차범위내에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관련 표는 1위 양승조, 2위 박수현, 3위 정진석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위 기사의 표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위 기사의 표는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하윤수	하윤수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